

VERTIGO

Chaos and dislocation
in contemporary Australian art

**BOE-LIN BASTIAN
GATE CONSANDINE
SIMON FINN
JUSTINE KHAMARA
BONNIE LANE
KRISTIN M^CIVER
KIRON ROBINSON
KATE SHAW
TANIA SMITH
ALICE WORMALD**

인사말

호주 정부는 2014 아시아링크 아트 순회 전시 프로그램(Asialink Arts Touring Exhibi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포스코미술관에서 개최되는 <Vertigo> 전시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긴밀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문화, 교육, 비즈니스를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이 호주 정부 공공외교 사업의 핵심입니다.

10명의 호주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호주의 현대미술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한국 작가와 관람객들이 양국의 공통 관심주제와 이슈를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에 대한 대화와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링크와 포스코미술관이 공동으로 이번 전시회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의 주요 고객사로 양국 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포스코와 호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양국 사회의 폭 넓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Vertigo>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랍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
(The Hon Julie Bishop MP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큐레이터 전시 기획 설명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의 영화 속 인물인 미지 우드(Midge Wood)는 <현기증(Vertigo)>¹의 첫 장면에서 “내일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불가능한 질문을 한다.

내일이 가져다 주는 불가능과 불확실성이야말로 이번 전시에 담긴 작가들의 작품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이다. 미지의 느낌이 이들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으며 반세기전 만들어진 영화의 주인공 스코티 퍼거슨(Scottie Ferguson)처럼 작가들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가 아니라 혼미와 균열에서 떠오르는 세계를 탐색하고 있다. 미지의 세계를 파고들고자 하는 바로 이 욕망이 <Vertigo>의 작가들을 한데 묶어주고 있다.

보린 바스티안(Boe-lin Bastian), 케이트 콘산딘(Cate Consandine), 사이먼 핀(Simon Finn), 저스틴 카마라(Justine Khamara), 보니 레인(Bonnie Lane), 크리스틴 맥키버(Kristin McIver), 키론 로빈슨(Kiron Robinson), 케이트 쇼(Kate Shaw), 타냐 스미스(Tania Smith)와 앨리스 워말드(Alice Wormald) 이들 10명의 작가는 관객들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련의 전략을 품고 있다. 이것이 자연 세상의 구조 이동을 통해서든지 혹은 인간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과 과대망상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들의 작품은 꿈과 현실 사이의 혼란, 끊임없는 변화와 미끄러짐으로 강조되는 풍경을 가로지른다.

네온사인, 페인팅, 콜라주, 드로잉, 비디오, 조각 작품 등을 통해 작가들은 현 세계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심리적 반향과 어긋남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오늘 날 우리의 삶은 환경적 재앙, 불평등, 전 세계적 갈등, 우리의 사회문화적 모습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과 같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있다. 소설 미디어 전문가인 앤드류 킨(Andrew Keen)은 “디지털과의 실재 없는 연결, 투명성과 개방 문화의 강박,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라는 끊임 없는 요구는 실제 21세기의 삶을 한층 더 현기증 나게 한다.”² 라고 언급한다.

다채로운 전시 작품들은 모두 예술적 과정에서 탄생하였으며 개념적 기틀 혹은 주제를 가지고 현기증의 느낌을 말해주고 있다. 작가들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현실과 상상간의 구분을 모색하고 불안감과 유머, 혹은 추상적인 몸짓을 통해 자신들 주위의 세계를 파악하는 시도를 하고 어지러운 결과를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진지함을 담고 희망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가? 일부는 절망의 언저리에서 비틀거리지만 엄숙함을 통해 그것을 잘라내어 다원적 삶과 세상에는 고정된 개념이 없다는 인식의 풍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간성의 불안함을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스며든 일상을 교란시키고 인간의 경험에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한다. 우리의 현기증나는 현재 세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무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히치콕의 주인공 스코티가 미지에게 “내일 이후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때의 낙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건 아주 쉽지”라고 외쳤다.³

클레어 안나 왓슨 (Claire Anna Watson)
큐레이터

1. 알프레드 히치콕(감독). 현기증 (영화). 파라마운트 픽처스, 1958.

2. 앤드류 킨. 디지털 현기증: 온라인 혁명이 어떻게 우리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며 혼란스럽게 하는가. 뉴욕: 세인트 마틴 그리핀, 2012, p.66.

3. 알프레드 히치콕. 현기증.

BOE-LIN BASTIAN

1986년 호주 캔버라 출생, 멜버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보린 바스티안은 비디오와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일상의 사물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생명과 유머를 불어넣는다. 기존의 조각 형태에 관람자와 함께 의미와 서술을 투사시켜 작품에서 암시된 의미와 투사된 의미간의 긴장을 강조한다. 바스티안은 멜버른뿐 아니라 아델레이드, 시드니, 스코틀랜드, 그리스의 다양한 갤러리 및 온라인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

www.boe-lin.com

CATE CONSANDINE

1970년 호주 시드니 출생, 멜버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케이트 콘산딘은 조각, 비디오 및 행위 예술 등 폭넓은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사람 몸의 윤곽을 통해 심리 상태, 공간 및 감정을 탐색한다. 비디오 편집에서 ‘컷트(cut)’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복합성과 인간과 시간 자체의 관계를 파헤친다. 작가는 현재 멜버른 대학교 빅토리아 예술대학에서 조각 및 공간조형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과 스페인, 영국 및 프랑스에서도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www.sarahscoutpresents.com

SIMON FINN

1976년 호주 멜버른 출생, 멜버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사이먼 핀은 드로잉, 조각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정적인 것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복잡한 디지털 모델링, 렌더링, 물리 계산법 등을 사용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의 순간을 정지시켜 묘사한 목탄 드로잉, 비디오, 합성 조각으로 보여준다. 그는 현재 SAE에서 애니메이션과 게임 디자인 강의를 맡고 있고 전시활동도 활발히 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드로잉 상도 수상한 바 있다.

www.simonfinn.info

JUSTINE KHAMARA

1971년 호주 멜버른 출생, 멜버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저스틴 카마라는 주로 사진 재현을 통한 복잡한 조각 콜라주를 만들어낸다. 그는 2차원의 사진을 잘라 사진의 각 부분에서 조각과 콜라주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통해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감성으로 사진 조각을 만든다. 현재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고 있다.

www.justinekhamara.com

목발(*Crutches*) 2013. 크러치, 나무 상자와 아크릴 페인트

젤리(*Jellies*) 직렬연결(*Coupling Series*) 2010. HD비디오 4분13초

크고/작음(*Big/Little*) 직렬연결 (*Coupling Series*) 2010. HD비디오, 4분30초 (왼쪽 사진) 작가 제공

소년(*Boy*) #1 2010. HD 비디오, 순환회로(무음)

래쉬(*Lash*) 2006. HD 비디오, 순환회로(무음) (왼쪽 사진) 작가와 멜버른 사라 스카우트 제공

하향 나선형 2(*Downward Spiral Two*) 2013. 종이에 목탄

합성 해일(*Synthetic Surge*) 2012. 종이에 목탄 (왼쪽 사진) 작가와 멜버른 페힐리 컨템퍼러리 제공

경고(*Alarm*) 2012. HD 비디오, 1080p, 2분 44초

해일의 연속(*Surge Sequence*) 2012. HD비디오, 1080p, 1분25초

나는 빛나는 사람이다. (*Now I am a Radiant People*) #2, #3, #5 2011. 칼라사진, 폴리머 베이스 화이트 글라스, 레진

궤도 스핀 트릭(*Orbital Spin Trick*) #3 2013. 레이저로 절단한 합판 조각물에 UV 프린트

고정축 주위로의 회전(*Rotation around a Fixed Axis*) #2 2013. 손으로 자른 칼라 사진(왼쪽 사진) 사진: 존 브라시 이미지 - 작가와 멜버른 ARC ONE 갤러리 제공

고정축 주위로의 회전(*Rotation around a Fixed Axis*) #3 2013. 손으로 자른 칼라 사진

회전 친화력(*Rotational Affinity*) 2013. 손으로 자른 칼라 사진

BONNIE LANE

1986년 호주 멜버른 출생, 멜버른과 LA에 거주하면서 활동 중



KRISTIN MCIVER

1974년 호주 멜버른 출생, 뉴욕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KIRON ROBINSON

1975년 방글라데시 찬드라고나 출생, 멜버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KATE SHAW

1969년 호주 시드니 출생, 멜버른과 뉴욕에 거주하면서 활동 중



보니 레인은 비디오 설치 작가로 실존의 관점에서 진부함과 부조리를 보여준다. 그녀는 소소한 일상과 기괴함을 전달하기 위해 가면과 이례적인 투사와 같은 시각적 테크닉을 비디오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한국, 미국에서 상주작가(artist-in residence)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호주, 뉴욕, LA, 서울, 아테네, 중국,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에서 비디오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www.bonnielane.net

크리스틴 맥키버는 조각, 페인팅과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자와 네온 같은 기기를 활용한 그의 작품은 우리의 과도한 소비 문화에 팽배해있는 욕망과 갈망의 주제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용품의 미적 요소에 대한 환상을 부수려는 시도를 한다. 그의 작품은 여러 대회에서 수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2012년에는 멜버른 조각 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작품은 호주(빅토리아 국립 미술관),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그는 2013년에는 뉴욕의 OMI 인터내셔널 아트 센터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하였다.

www.kristinmciver.com

키론 로빈슨은 네온, 비디오,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개를 재료로 활용하여 의심, 믿음, 실패의 개념을 탐색한다. 그의 작품은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의 ‘저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을 경험하고 직면하는 상황을 모색한다. 2003년부터 그는 호주, 일본, 더블린, 싱가포르, 마닐라 등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여러 곳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하였다. 2013년에는 모나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현재 멜버른 대학교 빅토리아 예술대학에서 사진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www.kironrobinson.com

케이트 쇼의 페인팅과 비디오는 독성과 인공적인 느낌을 가진 자연의 절묘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인간에게 내재된 자연 세계와의 연관성과 이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모순됨을 반영한다. 그는 작품을 통해 기술이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보는 동시에 관람자로 하여금 엄청난 자연 재해의 장면을 마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호주, 뉴욕, 홍콩에서 작품을 전시를 하였고 오uckland, 베이징, LA, 뉴욕, 파리, 레이카비크, 샌프란시스코, 서울, 도쿄 등에서 그룹전에 참가한 바 있다.

www.kateshaw.org

믿음(*Believe*) 2012. 단일 채널 HD비디오, 1시간 5분

삶은 고통이다(*Life is Pain*) 2010. 단일 채널 HD비디오, 7분9초(무음)

모래시계의 모래처럼(*Like Sands through the Hourglass*) 2010. 단일 채널, HD비디오, 2분(왼쪽 사진) 작가와 멜버른 안나 파파스 갤러리제공

일반적 분쇄(*An Ordinary Grind*), 2010, 단일 채널, HD비디오, 6분

사고의 파편(무슨 일이지?) *Thought Piece (What's Going On?)* 2013. 네온, 철, 콘크리트, 모션 센서, 비닐, 뉴런, 전기 임펄스

현기증(*Vertigo*) 2009. 네온, 아크릴 (왼쪽 사진) 작가와 멜버른 제임스 맥킨 갤러리 및 시드니 리버풀 스트리트 갤러리 제공

내 머리가 내 집이다, 내 머리가 내 집이다. (*My head is my home, my Head is my Home*) 2008. 화이트 글라스, 전구

나는 겁먹은 세상이다. (*I'm Scared World*) 2006. 네온 (왼쪽 사진) 작가와 멜버른 사라 스카우트 제공

몽상의 세계(*La-la Land*) 2013. 판자에 아크릴과 레진 (왼쪽 사진) 작가와 멜버른 페힐리 컨템퍼러리 제공

나다빌(*Nadaville*) 2013. 판자에 아크릴과 레진

관중(*The Spectator*) 2012. 단일 채널 HD비디오, 4분

TANIA SMITH

1981년 호주 멜버른 출생, 멜버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타냐 스미스의 작품은 공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유쾌한 개입이다. 그녀의 작품은 페미니스트의 퍼포먼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머가 해방과 정신 고양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을 보여준다. 작가는 메레디스 몽크(Meredith Monk)에게 트레이닝을 받았고 멜버른 모나쉬 대학교에서 미술 석사학위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호주와 세르비아의 인터내셔널 아트 스튜디오 발라호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www.tanielousmith.com

무제 #2 2012.
무제 길들여진 몸짓 (*Domestic Gestures*) 시리즈
HD비디오, 1 분 25초

무제 #6 2012.
무제 길들여진 몸짓(*Domestic Gestures*) 시리즈
HD비디오, 40초

무제 #8 2012.
무제 길들여진 몸짓(*Domestic Gestures*) 시리즈
HD비디오, 45초

무제 (금지 *Refrain*) 2013.
HD비디오, 1 분10초
(왼쪽 사진)
작가제공

아찔한 높이(*Giddy Heights*)
2012.
린넨 위에 유화

무제 #5 2012.
린넨 위에 유화

무제 #6 2012.
린넨 위에 유화
(왼쪽 사진)
작가와 멜버른의 데인 싱거 제공

ALICE WORMALD

198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생, 멜버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



앨리스 워말드의 페인팅은 고의로 자연적 혹은 사실적 묘사를 거부하는 자연 세계의 왜곡에 집중한다. 책과 잡지에서 잘라낸 자연의 이미지를 배열하여 덧칠하는 재구성 방식을 통해 이미지들을 생경한 풍경으로 변모시킨다. 워말드는 피오나 마이어 상(Fiona Myer Award), 카사마 그룹 상(Casama Group Award)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여성 협회상(National Gallery of Victoria Women’s Association Award)등을 수상한 바 있고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스위스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www.alicewormald.com

큐레이터 소개

클레어 안나 왓슨

클레어 안나 왓슨은 큐레이터, 아티스트 겸 평론가이다. 현재 블라인드사이드 (BLINDSIDE)의 의장 및 번울 카운슬(Banyule Council)에서 아트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해치 컨템퍼러리 아트 스페이스에서 전시 코디네이션을 맡고 번울 카운슬의 다양한 아트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아시아링크의 비주얼 아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이자 김스랜드 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큐레이터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호주 현대 미술 작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아시아링크 자료인 <매23일(*Every 23 Days*): 아시아와 호주 순회 20년- 제11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하이라이트(*20 years Touring Asia and Abundant Australia- Highlights of the 11th Venice Architecture Biennale*)>의 공동 편집과 집필을 담당하였으며 뮤지엄 오스트렐리아(Museums Australia)와 넥스트 웨이브(Next Wave)등 다양한 조직과 저널에 글을 기고하였고 모나쉬대학교에서 미술학 석사, RMIT 대학에서 공공미술 준석사를 취득하였고 호주, 포르투갈, 터키, 핀란드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파트너

아시아 링크 아트(Asialink Arts)

아시아링크 아트의 역할은 문화교류의 기회를 넓히고 파트너십, 협업, 상호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문화의 국제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링크는 4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시 투어,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 교류 프로그램 및 Utopia@Asialink로 구성되어있다. 전략적으로는 우선 차세대 예술 리더에게 기술, 지식,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게 하여 효과적인 아시아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여 호주 국제 문화 정책과 문화 외교전략의 성공사례 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순회 전시는 호주 현대 미술작품을 매년 아시아 전역에 선보이고 작가들의 현재 작품활동을 촉진시키며 예술교류와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링크는 박물관, 갤러리 및 주요 예술 행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시를 하면서 지역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아티스트, 큐레이터, 동료간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해가고 있다.

아시아링크 아트는 아시아링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멜버른 대학교의 마이어 재단이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 링크는 기업, 정부, 자선 및 문화 파트너들과 함께 호주와 아시아의 참여를 고무하고 강화해 가고 있다.

www.asialink.unimelb.edu.au/arts

블라인드 사이드(BLINDSIDE)

블라인드 사이드는 호주 멜버른에 소재한 독립적인 컨템포러리 아트 공간으로 주요 역할은 협업과 실험의 담론적 플랫폼을 제공하여 유능한 아티스트를 키워가는 것이다.

작가와 다양한 커뮤니티를 한데 묶은 진화된 공간으로서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기대에 도전을 하게 만든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심층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습, 이해, 공유의 공간이 되고자 하며 미술관련 작가와 아티스트 지원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작업을 개념화하는 비평글 또한 함께 제작된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자유로운 대화, 워크샵, 포럼과 같은 광범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블라인드 사이드 재단은 새로운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고한 파트너십으로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프로젝트를 국제무대로 확산시키고 아시아의 번성하는 예술 문화를 공유하고 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확대되는 입지를 활용하여 독특하고 유익한 경험을 전시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예술작품의 범위를 넓혀 작가들의 대담하고 화려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www.BLINDSIDE.org.au

감사의 말

큐레이터는 아시아링크 아트팀에게 <Vertigo>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 특히 블라인드 사이드의 부관장인 앤드류 테츠라프(Andrew Tetzlaff)의 지속적인 동지애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전시회 과정 중 열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작가들과 대표들에게도 감사 드린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준 칼리 미하이일리디스(Kali Michailidis) 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티스트

Boe-lin Bastian, Cate Consandine, Simon Finn, Justine Khamara, Bonnie Lane, Kristin McIver, Kiron Robinson, Kate Shaw, Tania Smith, Alice Wormald

큐레이터

Claire Anna Watson

전시 매니저

Louise Joel

전시 코디네이터

Jessica O'Brien

<Vertigo> 전시 일정 및 장소

인도네시아: 반둥, 반둥공과대학교 Galeri Soemardja, 2014년 3월 20일 - 4월 15일

대만: 타이페이, 현대 미술관(MOCA), 2014년 5월 9일 - 6월 8일

한국: 서울, 포스코미술관(POSCO Art Museum), 2014년 7월 23일 - 8월 27일

발행기관

Asialink

The University of Melbourne

Sidney Myer Asia Centre

The University of Melbourne

Parkville, Victoria 3010 Australia

www.asialink.unimelb.edu.au/arts

First published 2014

© 2014 the authors, Asialink Arts and artists

디자인

Famous Visual Services

<Vertigo>는 아시아링크 아트와 블라인드 사이드의 순회 전시이다. 아시아링크 비주얼아트 순회 전시 프로그램은 호주연방정부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시아링크 아트는 예술 기금 지원 기관인 호주예술위원회 그리고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니셔티브인 시각 예술 및 공예 전략(Visual Art & Craft Strategy)의 지원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파트너



BLINDSIDES

프로젝트 지원기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ustralian Government



State Government Victoria

THE VISUAL ARTS AND CRAFT STRATEGY



Australian Embassy Seoul

